

뉴스홈 | 최신기사

## <프로야구> FA에도 '그늘'이..

송고시간 | 2008-11-04 16:11



김남권 기자  
기자 페이지



이상목(삼성)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전규수 기자 = 2008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프로야구가 스토브리그에 접어드는 가운데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게 된 대어급 선수들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프로야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김동주, 이혜천, 손민한 등 일부 스타 선수들은 일본 구단에서 손짓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외로 나가지 않을 선수 중에서도 올 시즌 활약을 강조하며 과거 'FA 대박만 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예상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같은 FA 대상자임에도 팀이나 개인 사정상 'FA 수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어 FA의 '명암(明暗)'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올 시즌 팀 성적에 좋지 않았거나 본인 스스로 팀에 큰 이바지를 하지 못한 선수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진통 끝에 현대 유니콘스에서 옷을 갈아입었지만 7위에 그친 히어로즈의 안방마님 김동수(40)는 내년 시즌 팀의 선수 겸 코치로 뛰기로 한 만큼 FA 시장에는 나오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1010회  
모토당첨결과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장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이대진(KIA) 자료사진

역시 FA 자격을 얻게 된 같은 팀 투수 전준호(33)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FA 신청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더 실었다.

전준호는 "혹시라도 FA를 신청했다 팀을 옮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에도 팀 사정도 어렵고 해서 고민이 많다"라며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있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꿀찌 불명예를 안은 LG 트윈스의 FA 대상자 최동수(37)의 경우, 올 시즌 극히 부진했던 팀 성적이 FA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다. 최동수는 내년 시즌 팀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놓은 뒤라야 FA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한 상태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가 재계약 방침 표기를 발표한 투수 이상목(37)은 FA 대상자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우울한 스토브리그를 맞고 있다. 이제 소속 팀이 없어진 만큼 FA 대상자라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 이상목으로서는 내년 시즌 뛸 수 있는 구단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KIA 타이거즈 투수 이대진(34)은 올 시즌 6위라는 부진한 팀 성적에도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개인 성적을 감안할 때 FA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비로 미국에서 투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역시 FA 신청을 하기보다는 내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의 표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구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FA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총평했다.

sout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4 16:11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는 '유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뚱뚱...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이션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32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돌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